

효자노릇 톡톡히 한 실용서들

상반기 매출액 신장 상위순위 독식... 가벼운 책의 범람 우려

실용서적이 강세다. 96년 상반기 출판시장을 살펴볼 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실용서적의 꾸준한 신장이다. 장기간에 걸친 출판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실용서적은 불황을 이기는 '효자'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교보문고가 집계한 상반기 매출액에 따르면 신장률 상위순위를 실용서들이 독식하고 있다. 유아·주부 분야가 33.3%의 신장률로 수위를 차지했고, 30.5%가 늘어난 컴퓨터 서적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외국어 분야도 25.4%나 증가했다.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를 50위까지 집계한 을지서적의 목록에는 실용서적(컴퓨터·직장인·건강·외국어·여성)이 14권 들어 있다.

새로운 학습 방법론 등장

실용서는 범주가 매우 넓다. 문학과와 학술서를 제외한 분야를 실용서로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외국어 학습서, 여성·육아, 성공·처세담, 컴퓨터, 그리고 오락서적이 여기에 속한다. '실용(實用)'은 실생활에 사

장기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실용서적이 '효자'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상반기 베스트셀러 순위

실용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종합출판사에서도

실용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출판사 매출액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용되거나 소용됨을 뜻한다.

실용서적의 주류는 각종 학습서. "사회구조의 전문화·개인화로 습득해야 할 정보의 양이 폭주했다. 이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해 현대인을 짓누른다. 슬기롭게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이 새로운 방법을

추구한 학습서로 나타났다." 디자인하우스 편집부의 유승준씨는 실용서 강세의 사회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같은 길도 이왕이면 재미있게 간다"는 새로운 학습 방법론의 시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93년 1월 발간 이후 70여쇄 70만부가 나갔다. 《주니어...영어》도 45쇄나 찍었다. 《...한자》는 15만부 정도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시행에 맞춰 《칠드런...영어》를 곧 펴낼 예정이다.

시리즈 이름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베스트셀러 행진을 이어갈 기세다. 디자인하우스는 디자인 전문서적을 펴내다 5년전부터 종합출판을 시작했다. 문학이나 예술 분야의 매출은 미약하고 실용서가 출판사의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20대 미혼여성을 독자로 확보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 막강한 파워의 독자군이 결혼을 하고서도 힘을 잃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육아·여성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요리·태교·영

재교육에서 성생활 지침서까지 폭넓게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요리서적은 전집류의 요리백과나 요리연구가의 전문적인 작업에 국한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책의 특징은 저자의 실명화를 통한 친근감. 이 점은 제목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손창민의 아내 이지영의 요리솜씨》(여성자신)와 《며느리에게 주는 요리책》(이화여대 출판부)이 그렇다.

《이지영의 요리솜씨》는 지난 4월 출간 이후 4만부가 팔렸다.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다. 집에서 하기 쉬운 요리를 다룬 것이 히트 요인이 아닌가 한다." 여성자신 영업부 강금석씨의 말이다. 물론 연기인 손창민씨의 유명세가 한몫 단단히 했음은 분명하다.

자기 자식이 예뻐 보이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기는 부모의 인지상정.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책들이 널려 있다. 《엄마, 나를 천재로 길러주세요》(민지사)는 조기교육 붐이 일기 전에 번역 출간되어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있는 스테디셀러. 83년 출간되어 현재 3판 16쇄를 기록 중이다.

《강봉수 할머니, 손자를 천재로 만드셨다면서요?》(서울문화사)는 가장 최근에 합류한 영재교육을 위한 책이다. 《엄마 아빠 이렇게 키워주세요》(IQ 100의 천재 150의 바보) 《당신의 자녀를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고 있습니까?》 등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자녀교육·영재교육 관련서다.

출판매출의 상당액 차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김영사)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장기 체류' 중이다. 사회과학 분야의 경제·경영서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 책의 인기를 거울삼아 나온 책들의 실용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성공을 성취하려면 습관을 정복하라》(삼성서적),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양서원), 《경리 지식에 강한 남자가 출세한다》(더난출판사) 등. 이 책들의 주된 독자는 직장인들인데 인간관계, 화술, 습관에 관한 책도 많이 읽힌다. 최근에는 생활설계사들이 쓴 실무

화제의 책

정보로 읽는 민족문학의 큰 흐름

《한국현대대표소설선》 1차분 6권 출간



금세기 한국소설을 총정리한 《한국현대대표소설선》(전 6권)이 나왔다. 정혜림 편집고문과 임형택(성균관대 한문교육과)·최원식(인하대 국문과)·임규찬(문학평론가)·김재용(문학평론가)씨 등 민족문학 진영의 중진·소장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이 선집은 1년 동안의 작품선정, 1년 반의 자료수집과 편집·교정을 거쳤다.

이 선집은 한국현대소설사에서 역사적인 중요성이 이미 확인된 작품은 물론,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품도 민족문학의 시각으로 엄선해 수록했다. 1910년대 신채호에서 1950년대 이호철까지 소설가

90명의 대표 중·단편 165편을 담았다.

이 선집의 첫째 특징은 사장될 뻔한 명작의 재발굴이다. 태화산인의 〈우의〉, 양건식의 〈귀거래〉, 현상운의 〈뽕박〉, 박찬모의 〈꿈꾸는 마을〉 등이 현대본으로 처녀 출판되었다. 〈혈서〉(이광수), 〈태형〉(김동인), 〈양과자감〉(염상섭), 〈지형근〉(나도향) 같은 작품은 새롭게 조명된 소설들이다. 여기에 발표본부터 마지막 퇴고본까지 꼼꼼하게 추적하고 출간 당시의 잘못을 점검한 정보화 작업과 세번에 걸친 원문대조 교정을 통해 완벽한 판본을 지향했다. 자세히 쓴 해설과 낱말풀이를 각 권말에 실어 소설 감상을 돕고 있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현대대표시선》의 자매격인 소설 선집은 모두 9권으로 기획되었다. 이번에 6권이 나왔고, 9월에 3권을 더 펴내 완간할 예정이다. 〈최성일〉 창작과비평사/A5신/각 450면 내외/각 8000원



다양한 분야의
 실용서들의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가 속속 출간되고 있다.

컴퓨터 서적은 《컴퓨터 길라잡이》(정보 문화사),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길벗),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 만큼 한다》(나경문화) 등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길벗출판사는 컴퓨터서적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후발주자이면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상품분석과 소비자욕구분석을 통해 인터넷 입문서를 펴낸 것이 들어맞았다. 길벗도 종합출판을 지향하지만 실용서들이 출판사의 간판이다. 실용서가 전체 매출의 80%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 출판사 관계자의 얘기다.

96년 상반기를 장식한 가장 획기적인 실용서는 《포커, 알면 이길 수 있다!》(여백)이다. 출판사에 따르면 50만부를 찍었다는 이 책이 서울 시내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대부분 빠져 있다. 겨우 한곳에서만 여성·실용 부문 3위에 랭크돼 있다. 세간의 이목을 감안해 고의로 누락시킨 듯하다. 실용서는 전국적으로 고른 판매량을 보이는데 이 책 역시 그렇다.

포커게임의 실전이론을 다룬 《포커, ...》의 저자 이윤희씨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포커밖에 없다”고 부끄럽게 말한다. 게임에 들어가면 이기고 나서 정의를 찾으려는 것이 저자의 승부철학이다. 포커게임도 바둑이나 장기의 고수처럼 실력차가 있는 게임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런 철학과 주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포커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포커게임에 대한 저자의 인식을 통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나친 상업화 우려

건강지침서와 여행안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실용서 항목들. 해외여행안내서는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부쩍 늘었고, 국내여행안내서는 답사여행안내서가 주종을 이룬다. 이 책들은 휴가철을 정점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다.

단전호흡·전생요법·뇌 관련서·치질 변비·척추·암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서가 나와 있지만 자연건강법을 다룬 책이 가장 인기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에는 황도요법을 다룬 책이 줄을 잇고 있다.

침체된 출판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실용서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출판의 에너지원이라는 긍정성과는 별개로 실용서의 득세가 낳은 문제점도 적잖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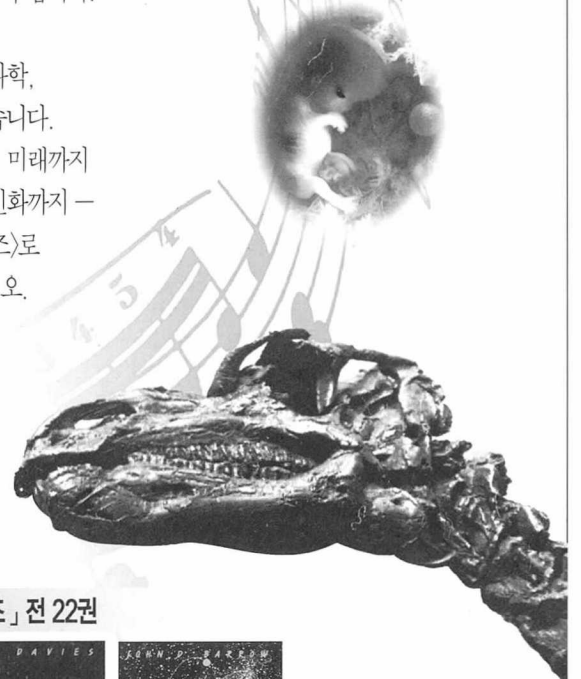
첫째가 실용성을 빙자한 가벼운 책의 범람이다. 유네스코는 50쪽이 넘어야 책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부피만을 일컫는 것은 아닐 듯싶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지나친 상업주의 역시 실용서 전성시대가 낳을 수 있는 폐단이다. “출판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긴 안목을 갖고 끈기있게 승부해야 하는 마라톤 경기”라는 원로 출판인의 지론을 되새겨야 할 때다. — 최성일 기자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 <사이언스 마스터즈>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
 이제, <사이언스 마스터즈>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로 본 진화의 매커니즘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스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친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크비워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 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 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라키 지음



⑤ **원소의 왕국**
 화학 원소들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
 어떻게 주기율을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서의 신나는 여행이 될 것이다 피터 앳킨스 지음



⑥ **자연의 수학적 본성**
 이를 다룬 관념의 우주, 수학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눈송이는 왜 모두 6각형인가?
 호랑이는 줄무늬, 표범은 점박무늬인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언 스투어트 지음

정가: 각권 6,800원
 ※ 계속 발간 됩니다.

동아출판
 영업 (02)861-4818 / (02)853-5608